

“지역 현안 총선 공약에 적극 반영해야”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각 정당이 속속 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도 공약 경쟁을 통해 지지부진한 지역 현안의 출구를 찾고 미래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을 통해 마련된 광주·전남지역 공약은 차기 대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서도 여야와 지역을 떠나 보다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미래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지역 정·관계에서는 이번 4·15 총선을 지렛대 삼아 여야의 공약 경쟁을 통해 광주·전남지역 현안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조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광주형 일자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구축, 한전공대 설립, 크루즈 관광 인프라 및 해상관광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각 정당에서는 정책 공약을 속속 발표하고 있지만 아

여야 4·15 총선 앞두고 정책공약 속속 발표 광주 군 공항 이전·청정전남 블루이코노미 등 사전 협의 통해 출구 찾고 미래 비전 마련해야

직까지 광주·전남지역 공약은 구체화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이 당내 경선과 정치적 이합집산에만 매몰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의 정책 공약 제기가 어느정도 마무리되면 지역별 공약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시기적으로는 경선이 마무리되는 '2말3초(2월말~3월초)'에 구체화 할 것이라는 것이다. 송갑석 민주당 광주시장 위원장은 "현재 광주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 가운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또 전남도당과 협의, 광주시와 전남도의 상생과 미래 비전이 담긴 공약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대 설립 등에 있어서도 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하는 상황이다. 대구 군 공항과 달리 광주 군 공항 이전은 무안 등 이전 대상 지자체의 강력한 반발 속에 대안 없이 지체되고 있으며,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 역시 본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평가다. 또,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전공대 역시 일부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로 매그립지 못한 실정이다. 그 외에도 광주의 인공지능(AI) 및 광주형 일자리, 전남의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 등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한 프로젝트다.

소영호 전남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총선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여당과 야당이 광주·전남에 적극적으로 구애를 할 것으로 예상돼 총선 공약을 이미 준비했으며, 조만간 각 정당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 설립 등에 있어서도 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하는 상황이다. 대구 군 공항과 달리 광주 군 공항 이전은 무안 등 이전 대상 지자체의 강력한 반발 속에 대안 없이 지체되고 있으며,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 역시 본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평가다. 또,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전공대 역시 일부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로 매그립지 못한 실정이다. 그 외에도 광주의 인공지능(AI) 및 광주형 일자리, 전남의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 등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한 프로젝트다.

소영호 전남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총선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여당과 야당이 광주·전남에 적극적으로 구애를 할 것으로 예상돼 총선 공약을 이미 준비했으며, 조만간 각 정당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판사, 울먹이며 “공권력 위법” 사과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72년 만에 무죄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무고하게 처형을 당한 민간인 희생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억울하게 희생된 지 72년 만에 명예회복이 이뤄진 셈이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0일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선고 공판에서 철도기관사로 일하다 처형당한 고(故) 장환봉(당시 29세)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사과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부 구성원으로, 이번 판결의 집행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히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여순사건 희생자들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고단한 절차를 더는 밟지 않도록 특별법이 제정돼 구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장환봉은 좌익, 우익이 아니라 명예로운 철도 공무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더 일찍 명예로움을 선언하지 못한 것에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무죄 판결의 배경을 밝힌 김 부장판사는 한때 울먹이며 말을 잊지 못했으며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1948년 당시 군법회의에서 장씨에게 적용한 내란과 국권 문란 죄에 대

해 "범죄 사실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장씨와 함께 재심 재판 피고인이었던 신모씨 등 2명은 재심 청구인이 사망해 사건이 종결됐다. 재판부가 장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유족과 시민단체, 시민 등 70여명은 일제히 환호했다.

장환봉씨의 딸 장경자(75)씨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했는데 여러분의 도움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늦게나마 국가에서 사과를 한 만큼 여순사건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돼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길 바란다"며 "역사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장씨는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내란 및 국권 문란죄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곧바로 형이 집행됐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증거 요지가 기재되지 않았고 순천 탈환 후 22일 만에 사형이 선고·집행된 점 등을 이유로 장씨 등이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구속됐다고 보고 지난해 3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안철수, 광주 5·18묘지 참배 ... “시민들께 사과 드리러 왔다”

1년 4개월 만에 정계 복귀를 선언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20일 광주를 찾아 과거 국민의당 지지자들에게 사과했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민주의 문'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을 지지해주신 많은 분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 서운하셨을 것이다. 늦었지만,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20대 총선 승리 이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해 바른미래당을 창당한 것에 대한 사과의 뜻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3면>

안 전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영호남 화합, 국민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역사의 고비에 물줄기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며) 옳은 길을 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묘역 앞에서 일부 시민이 '광주 정신 모독'이라며 항의한 것과 관련해 "저를 지지해주셨던 많은 분께 감사드리고, 그 과정에서 부족했던 저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다. 그 목적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전날 귀국한 안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립현충원을 찾은 뒤 오후에는 광주 5·18



안철수 전 의원이 20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묘역에 도착해 5·18민주항쟁 추모탑을 참배하고 헌화·분향했다. 윤상원·박기순 열사 묘 앞에서 잠시 무릎을 꿇고 비석을 어루만진 그는 취재진을 뒤로 물린 뒤 묘역을 응시하며 홀로 참배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날 안 전 의원의 광주행엔 바른미래당 권은희·김삼화·김수민·신용현·이동성 의원뿐 아니라 호남계 박주산·주승용·김동철 의원, 당권파 최도자 의원이 동행했다. 안 전 의원은 참배 이후 장인의 묘가 위치한 여수로 이동했다.

여수시립공원묘지 내 장인 산소를 찾아 성묘를 마친 안 전 의원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국민만 만나겠다. 선거와 관련한 분들에게 관심이 없다"고 일축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신임 대법관 후보에 노태약 부장판사 제청

오는 3월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노태약(58·사법연수원 16기·사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최종 낙점됐다. 대법원은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추천한 4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 중 노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노 부장판사가 대법관으로서 갖추어 할 기본적인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 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임명제청 사유를 밝혔다.

경남 창원에서 태어난 그는 계성고, 한

양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0년간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온 정통 법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임명제청을 받아들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절차를 통과한 뒤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AMORE PACIFIC CORPORATION

● 기업고객님을 위한 아모레퍼시픽 설날 선물세트 ●

● 3만원 이상

프레시팝 베이직 선물세트
32,900원

러 동백&박하 에디션
34,900원

자자극 디어 헤어&바디세트
36,900원

러 자양요요 기프트
39,900원

사랑행복두배 기프트
49,900원

정성가득 기프트
55,900원

● 3만원 이하

종합 3호
16,900원

종합 4호
21,900원

AP 아로마퍼퓸 세트
29,900원

AP 로즈에디션 세트
28,900원

*매장별 취급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매 전 매장 담당에게 문의해주세요. 아모레퍼시픽 데일리뷰티 광주영업팀 : 062-231-1868(09:00~18:00) *본 카탈로그의 이미지는 연출컷으로 실제 이미지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